

조선시대 지식인의 지적 교류 연구를 위한 문헌-인물 데이터 모델 설계

-여성 전기류 한문 텍스트를 중심으로-

인문정보학과 석사 수료

김선미

목 차

I. 서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 방법

II. 전기문학의 특징

1. 전기문학의 종류와 형식
2. 전기문학 속의 인물관계
3. 여성 대상 전기문학의 특징

III. 문헌인물관계 온톨로지 설계

1. 유관 선행모델 분석
 - (1) 중국역대인물전기자료 데이터베이스(China Biographical Database(CBDB))
 - (2) 한국사 LOD
 - (3) 한국 기록유산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자원 개발(Encyclopedic Archives Project)
2. 온톨로지 설계
 - (1) 클래스 및 데이터 속성
 - (2) 관계 속성
 - 1) 저술관계 설계
 - 2) 인물-인물 관계 설계

IV. 문헌-인물관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

1.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구축
 - (1) 데이터 수집 및 처리
 - (2)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2. 문헌-인물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활용 예시

- (1) 이섭 처 안동 김씨 대상 전기문학과 노론 대신들의 관계망
- (2) 은진 송씨 가문 여성 전기문학과 가문 위선 사업
- (3) 『정일당유고』에 드러난 윤광연의 인물 관계

V. 결론

I. 서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추후 서술]

2. 연구 방법

[추후 서술]

II. 전기류 고문서의 특징

지식인은 책무의식의 충족과 자기완성의 방편이자 지적 교류의 수단으로 문자를 이용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지식인의 문자생활을 단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개인적인 문자 안에 현실대응의 정서가 있을 수 있으며 공적인 문자에도 개인의 심리, 지향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¹⁾

17세기 이후 가문 중시 경향이 강화되면서 유집을 간행하는 풍조가 만행하였다.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문자는 삶의 일부와도 같아서 그들은 태어나 처음 글을 쓴 이래로 삶을 마칠 때 까지 문자와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았다. 심지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묘지명, 행장 등의 문자를 통해 추억되고 평가되었다.²⁾ 특히 문집의 간행에 있어서 어떤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았는가, 어떤 사람의 문집의 서·발문을 썼는가, 와 같은 문제는 해당 인물이 얼마나 가치있는 삶을 살았는가를 평가하는 주된 항목이었다. 그러므로 조선의 지식인들은 그들의 생애 동안 단 하나의 문자생활도 허투루 하지 않았고 이는 문집 편찬과 사후 기록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간찰과 일기 등에 잘 드러나 있다.

사후 기록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황(李滉)은 당대 유학자들의 거두라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행장 7편, 비지류 46편을 짓는 데에 그쳤다. 이는 송시열이 500편 이상의 글을 청탁받아 지어준 사실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편이다. 이황은 이러한 청탁을 두고 그의 저서에 '문장 작성의 어려움 뿐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으며³⁾ 친분 있는 사람의 부탁이라도 수락을 신중히 했다. 이는 당대의 문장가로서 수많은 비문을 저술한 다른 학자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은 청탁자가 원하는 방향과 자신의 저술 원칙이 부합하지 않아 여러 번 거절한 끝에 받아들인 사례가 빈번하게 보인다.⁴⁾

1) 문자와 매체 조선 선비들의 문자생활과 지적 교류, 415

2) 문자와 매체 조선 선비들의 문자생활과 지적 교류, 414

3) 퇴계의 행장, 비문 청탁사절의 원인분석 94

4) 조선 후기 묘도문 찬술 연구 171

1. 전기류 문학의 종류와 형식

어느 한 개인의 일생 혹은 일생의 특정 국면을 서술하는 글을 가리켜 기인문학(記人文學), 혹은 전기문학(傳記文學)이라고 한다.⁵⁾ 이러한 글은 개인이 생을 마감한 후 주변인에 의해 집필된다. 해당 인물에 대해 후대에 전하는 글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⁶⁾

본 논문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전기문학의 갈래는 비지류, 애제류, 행장류 세 가지이다. 비지류(碑誌類)는 묘지명(墓誌銘), 묘표(墓表), 비석(碑石)처럼 묘지에 부장하거나 세우는 용도로 쓴 글이다. 애제류(哀祭類)는 만사(挽詞), 제문(祭文), 책문(冊文)과 같은 글을 총괄하며, 전장류(傳狀類)는 행장(行狀), 전(傳), 기사(記事) 등의 문체를 포함한다. 문체 정리는 『임하필기(林下筆記)』를 주된 참고서로 삼고 여러 논문들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임하필기는 조선말에 간행된 이유원(李裕元)의 필기집으로, 2권 「경전화시편(瓊田花市編)」은 저자가 문체변명을 요약하고 설을 붙인 것이다. 널리 알려진 『문체론(文體論)』이나 『문체명변(文體明辯)』과 같은 글을 인용하지 않은 이유는 중국 서적보다는 조선 학자에 의해 쓰인 글이 조선의 문체 인식에 부합하였고, 저술 시기가 가장 늦은 만큼 이전에 변형된 문체에 대해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전장류(傳狀類)

행장(行狀), 사장(事狀), 유사(遺事) 등 행장류 산문은 인물의 일생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글이다. 특정한 형식을 차용하기보다는 사실 전달을 위한 편년체식 서술법을 사용한다.

■ 행장(行狀)

행장(行狀)은 죽은 사람의 세계, 이름, 자, 벼슬, 살았던 마을, 행적, 치적, 나이 등을 기술한 글이다. 이를 토대로 시호를 의논하거나 묘지, 묘비, 묘표 등을 쓸 때 근거자료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행장은 대부분 문하생, 수하, 친구들이 저술하는데, 이런 사

5) 비지류의 특징과 변천 양상, p340

6) 이황(李滉)은 김굉필(金宏弼), 조광조(趙光祖), 이언적(李彦迪) 등 사화 피해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의 비문을 거절한 적이 있다. 이는 그가 비문을 통해 인물의 행적, 정치사상등을 평가할 수 있어 후에 논란이 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이준경(李浚慶)이 형 이윤경(李潤慶)의 비문을 청탁했을 때에도 “어찌 비문을 지어 사단을 만들어 자신의 혼란을 가증시킨단 말이나”며 거절의사를 밝혔다. 전세영, 「퇴계의 행장(行狀)·비문(碑文) 청탁사절의 원인분석」, 『한국철학논집』 제62집, 2019, 106-107p

람들이 아니면 대상에 대해 사실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행장은 인물에 대해 최대한 많은 사실을 기록하기 때문에 전기류 문서 가운데 길이가 가장 길다.

■ 전(傳)

전(傳)은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서 한 사람의 전 생애를 기록한 것을 계승한 문체이다. 조선시대에는 덕이 있는데도 알려지지 않거나, 혹은 변변찮은 사람이라도 본받을 점이 있을 때 전을 지어 그 일을 전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세도가의 인물이나 고관대작의 자손은 드물고 지위가 낮으면서 효행(孝行)과 열행(烈行)에 힘쓴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가까운 사람이 작성하는 행장과 달리 특정 지역에서 정려받은 인물에 대해 듣고 쓰는 경우가 많다.

■ 행록(行錄), 유사(遺事) 등 기타 잡저

행장은 죽은 사람의 일생을 상세히 기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촌 이내의 가족 혹은 가까운 친지에 의해 저술된다. 그러나 가까운 대상이 행장을 쓰지 못한 경우 이를 대신하는 것이 행록(行錄), 유사(遺事) 실기(實記)와 같은 글이다. 인물의 평소 행실과 언행 등을 기록하여 행장, 혹은 묘도문을 부탁할 사람에게 보내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서술이 간략하고 인물과의 관계와 같은 부수적인 기록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2) 비지류(碑誌類)

비문은 원래는 풍비에 새겼던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따로 돌을 사용해서 새기게 되었다. 장사를 치른 사람이 묘지(墓誌)를 만들어서 유택에 보관하고 비, 갈, 표를 만들어서 밖에 걸어둔다. 이는 자손이 선조의 덕을 드러내고 나아가 가문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었다. 비지류를 만드는 일은 실재 비석을 마련하고 묘주의 일대기를 행장 등의 형태로 정리하고 정리된 일대기를 들고 묘문을 청탁하고 묘문을 직접 쓰는 서예가와 새기는 조각자를 모색하는 일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⁷⁾ 그러므로 비지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번듯한 묘를 세울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지문을 진행하는 자가 조선 유학자의 인적 네트워크 안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로 오면서 문필활동을 하는 지식인의 수도 많아지고 문집의 간행부수도 증가하였다. 창작 활동이 대중화됨에 따라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신분의 저작자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였다. 비지의 향유 계층도 하향화되어 비지문 대중화가 이루어

7) 안곡 조구명의 산문을 통해 살펴보는 비지, 행장류의 향방 시론 122 주석

졌다. 신분이 높은 사람의 경우는 여전히 문집에 높은 신분의 인사가 쓴 신도비문이 수록되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처사, 생원, 진사 혹은 그 외에 아무런 칭호가 없는 사람에 대한 묘지명이 대부분인 문집도 적지 않았다. 또한 여성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묘지명도 증가하면서 사실의 기술 외에 서정성의 비중도 함께 증가하였다.⁸⁾

이와 같이 비지류의 작자층, 향유층이 하양되었음에도 해제류나 전장류의 찬술과는 여전히 격을 달리하는 의식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청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벼슬이 높거나 학문이 높은 사람을 택하기 쉬웠을 것이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이창 장흥의 문집에는 일곱 편의 제문과 두 편의 뇌문이 남아 있지만 비지류의 글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그 이후 여타의 종인층 문인의 문집도 집안사람들에 대한 묘지명을 제외하면 사정이 비슷하였다.⁹⁾

조선 초는 대부분 작품이 전통적인 비지 격식을 준수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기존 비지문 서술형태에 대한 비판인식은 많지 않은 편이었다.¹⁰⁾ 또한 비지문의 목적을 상기해볼 때 전통적인 방식이 기존 수요자들에게 선호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비지류는 같은 전기문학의 범주에 속하는 애제류, 전장류 등의 글과 실용성 측면 외에 문학적 측면에서도 그 변별성을 갖고 있다.¹¹⁾

<그림> 묘표, 묘갈명, 묘지명 등의 위치를 그린 도안

(3) 애제류(哀祭類)

애제류의 기원은 고대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애제류라는 명칭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특정할 수 없다. 애제류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요내의 『고문사류』부터이다.¹²⁾ 애제류로 일컬어지는 문장은 여러 하위분류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그 형식 또한 다양하다. 크게 갈래를 살펴보면 만사, 조문, 애사, 책을 포함하는 애사(哀辭), 축문(祝文), 조문(弔文), 제문(祭文)을 총칭하는 제문(祭文) 두 가지가 있다.

■ 제문(祭文)

8) 비지류의 특징과 변천 양상, 335

9) 비지류의 특징과 변천 양상, 335

10) 비지류의 특징과 변천 양상 331

11) 비지류의 특징과 변천 양상, 340

12) 애제류의 갈래 성격과 글쓰기 216

제문은 친척이나 벗에게 제전할 때 사용하는 글이다. 옛날 제사는 고향(鼓響)하는 정도였지만 언행까지 겸해서 찬양하고 애상하는 뜻을 부쳤으므로 축문의 변체라고 할 수 있다. 글은 산문, 운문, 변려문 등 여러 가지 양식이 있다. 신을 대상으로 하는 문장은 의례적이지만 실용적인 면을 포함하는 문장으로서, 작가의 개성보다는 전통성, 전범성을 우선시하는 문류들이다. 그러므로 개별 작품의 수사나 형식에서 개성적 성향을 보이기보다는 애제류 문장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형식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¹³⁾ 그러나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망인문(祭亡人文)은 대상에 대한 찬양과 대상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감정을 강하게 서술할 뿐 특별한 형식을 갖추지는 않는다. 친족, 인척관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남성과는 달리 여성제문은 대부분 가족에 의해 작성된다.

■ 만사(挽詞)

원래 만사는 시가형식의 만가로 위나라 유충(劉寵?)이 전파시켜 계승한 것이다. 옛날 상여를 설치할 때에 죽은 이를 기리는 노래를 부른 데에서 유래한다. 만가(挽歌), 만시(挽詩), 만사(挽詞)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으며 신분고하, 남녀노소의 구분을 두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해 쓰였다.

만사는 제문과 달리 장소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저술하는 글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만사는 청탁을 받지 않고 평소 저작자와 친분이 있거나 존경하던 사람, 혹은 먼 과거의 위인이 대상이 된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문집 간행이 가문의 선양으로 이어지면서 대상의 문집에 부록으로 수록하고자 청탁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제문과 달리 시의 형태를 띠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형식을 갖지 않았다.

이상으로 살펴본 전기문학은 종류와 명칭에 따라 상이한 서술 방법을 따르고 있으나 특정인에 대한 기록인 만큼 기본적으로 공통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p>淑夫人青松沈氏墓誌銘 并序 夫人姓沈氏。系出青松。曾祖諱大亨。成均進士。贈兵曹參判。祖諱演。咸鏡道觀察使。父諱瑞肩。原州牧使。而歸于金氏。…………… 余與士興。族爲袒免。而情則膠漆。所慣於夫人壺範之懿。便是嫂叔間相悉。亦何必累列。而況士敬記實爲狀頗詳哉。旣難備載。裁從簡約而歸之。俾埋于墓隧云。</p>	<p>해석(추후 서술)</p>
---	------------------

13) 애제류의 갈래 성격과 글쓰기 216

<p>先妣家狀 先妣貞夫人沈氏。系出青松。……曾祖諱大亨成均進士。贈兵曹參判。祖諱演咸鏡道觀察使。考諱瑞肩原州牧使。妣昌原黃氏。驪州牧使贈吏曹參判瀧之女。……以其年四月十五日。附葬于先君之墓左。實洪州朝暉谷負良之原也。我金安東人。系譜官爵子姓婚娶。已載於先君狀中。茲不復錄。</p>	<p>해석(추후 서술)</p>
---	------------------

위의 표는 김시걸의 처 청송심씨에 대한 묘지명과 만사, 가장이다. 표의 글은 비슷한 형식의 글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이를 보아 알 수 있는 전기문학의 대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전기문학은 제목에 해당 인물에 대해, 혹은 인물과의 관계에 대해 명시한다. 대상 인물이 남자일 경우는 성과 호, 시호를 반드시 포함하며 여자인 경우는 표에 제시된 청송심씨 묘지명의 제목은 <淑夫人青松沈氏墓誌銘>이다. 숙부인(淑夫人)은 정 3품 당상관의 아내에게 내리는 봉작이다. 이를 통해 청송심씨의 남편이 고관을 지낸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先妣家狀>에서 先妣는 자식이 죽은 어머니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로서 가장의 글쓴이가 대상 인물의 아들임을 드러낸다.

둘째, 본문에 인물의 본적, 가계에 있는 뛰어난 인물, 부모에 대해 서술하여 대상의 집안과 가풍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서술한다. 전기문학이 인물에 대한 비평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물에 대한 찬(讚) 혹은 누명에 대한 변론을 주로 서술하는 만큼 인물의 생애 못지않게 집안에 대한 서술도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게다가 문집 편찬에는 대상의 후손들이 관여한다. 이들이 선조의 문집을 간행하는 의도는 대부분이 가문의 위신 향상이 목적이므로 대상의 선조에 대한 찬(贊)은 곧 가문, 더 나아가 가문에 속한 자신에 대한 간접적 선양(宣揚)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글의 저자가 대상과 2촌 이내의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경우, 대상과 교유관계가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글의 서두 혹은 말미에 글쓴이와 대상인물의 관계를 명시한다. 전기문학, 특히 묘도문은 비석을 깎아 무덤가에 세워 후대의 사람들에게 읽히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행장 혹은 제문에 비해 저술에 요구되는 문장가, 유학자로서의 지위가 높은 편이었다.

2. 전기문학의 인물관계

한 사람의 생애를 서술할 때 그 사람의 주변인물, 인물과의 관계를 서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찾아보는 인물의 위인전, 평전 등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1)공의 이름은 안의이고 자는 정보이며 성은 성씨이고 본관은 창녕이다. ……증조부는 (2)성익동이고 조부는 (3)성윤이며 아버지는 (4)성궤이다. 어머니는 (5)정연 노씨이며 호조참의 (6)노사영의 딸이다. ……자라서는 (7)한강 정 선생(정구)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의병장 (8)곽제우를 따랐으며 관찰사 (9)백암 김륙의 수하가 되었다. ……공은 부인이 들어있는데 전처인 (10)황씨는 중추부사 (11)황근의 딸이고 후처인 (12)김씨는 호조 참판 (13)김개선의 딸이다. 5남 5녀를 두었는데 장남 (14)성이침은 어진 행실이 있었지만 일찍 죽었고……이 시기에 더불어 스승삼고 벗삼은 자는 (15)월천(조목), (16)우복(정경세), (17)동계(정운), (18)청석(이준) 등 여러 노선생이고…… 나의 왕부 (19)참판공이 백성의 예로 공을 섬겼고 공이 더불어 벗하여 깊이 인연을 맺었다. ……지금 공의 손자 (20)용하가 가첩을 받들고 와서 나에게 묘에 명을 붙이기를 부탁하였는데……¹⁴⁾

위의 글은 이현일(李玄逸)이 저술한 정보 성안의(精甫 成安義) 묘지명 가운데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성안의는 성익동과 증조손 관계이며 성윤과는 조손 관계이고 성궤와는 부자관계, 성궤 처 정연노씨와는 모자관계이다. 정연노씨는 노사영과 부녀관계이고 노사영과 성안의는 외조손 관계이다. 성안의 처 황씨와 성안의 처 김씨와는 부부관계이며 황근, 김개선과는 장서관계이다. 성이침, 성용하와는 각각 부자관계, 조손관계를 맺는다. 정구와 사제관계, 곽제우, 김륙과는 일로 교유한 관계, 조목, 정경세, 정운, 이준 이현일의 왕부 참판공과 사우관계이다. 저작자인 이현일과는 참판공과 성용하, 그리고 묘지명을 통해 관계를 맺었다.

이처럼 전기문학은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대상인물, 그리고 대상인물과 혈연 혹은 교유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인물들의 관계에 대해 서술된 기록이다. 거기에 더해 대상 인물과 서술자와의 간접 관계도 형성된다. 문장을 쓰는 일이 사회활동을 일부 대신하는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누군가의 생애에 관한 글을 짓는다는 일은 그만큼 큰 부담을 안는 일이었다.¹⁵⁾

14) 『葛庵集』 卷二十五 通政大夫承政院右副承旨贈資憲大夫史曹判書成公墓誌銘: 公諱安義。字精甫。成姓。昌寧人。……曾祖諱翼全。祖諱胤。父諱績。皆隱德不仕。母長淵盧氏。戶曹參議諱士英之女也。……遊寒岡鄭先生之門。……公往從義兵將郭公再祐。已又從觀察使柏巖金公功幕下。柏巖公傾心與之。……公凡兩娶。前夫人黃氏。僉樞謹之女。後夫人金氏。戶曹參判繼善之女。有五男五女。男長以忱。有賢行早卒。……一時所與師友之者。月川，愚伏，桐溪，蒼石諸老先生。而全沙，西混爲莫逆交云。……吾王父參判公以民禮事公。而公與之友甚契也。……今者公之孫用夏奉家牒來。命玄逸俾銘其墓。……

15) 앞서 언급한 이황의 사례에 더해 윤광연의 스승인 홍직필 또한 윤광연 처 강정일당의 문집을 간행할 당시 묘지명 저술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는 강정일당의 유학자적 면모를 강조하는 당시 윤광연의 행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여러 차례 사양한 끝에 묘지명 병서를 짓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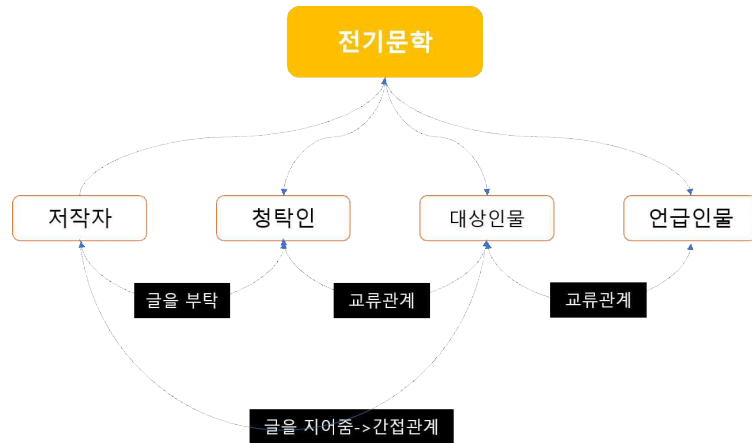


그림 1 전기문학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인물관계 도식

3. 여성 대상 전기문학의 특징

『한국문집총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기문학은 1800건 이상이며 1600년 이전 500건에 불과했으나 17세기 300건, 18세기 600건 등 비약적인 성장을 보인다. 이는 남성 대상 전기문학이 17세기 전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점과 비교하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전기부터 지식인들은 집안 여성을 위한 행장, 묘지, 묘지명 등의 글을 적극적으로 저술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후기로 접어들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문집 간행을 가문의 위신과 동일시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여성의 행적 또한 가문의 이름을 드높이는 수단 중 하나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시 기	남 성		여 성		계	
기원전	8	0.04%	2	0.01%	10	0.05%
1 ~ 917	88	0.43%	3	0.02%	91	0.45%
918 ~ 1391	749	3.66%	52	0.25%	801	3.91%
1392 ~ 1500	1,273	6.21%	141	0.69%	1,414	6.90%
1501 ~ 1600	4,241	20.70%	354	1.72%	4,595	22.42%
1601 ~ 1700	4,807	23.46%	621	3.03%	5,428	26.49%
1701 ~ 1800	3,929	19.17%	629	3.07%	4,558	22.24%
1801 ~ 1910	2,338	11.41%	361	1.76%	2,699	13.17%
미 상	790	3.85%	106	0.52%	896	4.37%
계	18,223	88.93%	2,269	11.07%	20,492	100.00%

표 2 여성 대상 전기문학의 시기별 저술 현황

이에 따라 여성 인물을 대상으로 한 전기문학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친가, 시가 인물들에 의해 작성되었고 저작자가 집안사람이 아닌 경우는 여성의 아들, 남편, 아버지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남성 지식인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 왔다. 이는 <金孀母氏挽(김확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만시)>, <監察金克成母全氏墓碣銘(감찰관 김극성 어머니 전씨 묘갈명)> 등의 제목에서도 드러나는 바이다.

구분	개수
남편이 저술	36
친정인물이 저술	12
시가인물이 저술	41
손자가 저술	17
남편의 부탁에 의해 저술	19
친정 인물의 부탁에 의해 저술	21
시가 인물의 부탁에 의해 저술	18
기타	10
합계	264

표 3 행장 대상인물과 작성자와의 관계

분류	수량
남편이 저술	135
직계 가족이 저술	86
친정쪽 친척이 저술	267
시가쪽 친척이 저술	351
남편의 부탁에 의해 저술	269
진정 인물의 부탁에 의해 저술	148
시가 인물의 부탁에 의해 저술	174
기타	54
합계	1337

표 4 비지문의 대상인물과 저작자의 관계

위의 표는 여성행장과 비지문 저작자와 대상인물간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직계 인물은 대상 여성의 아버지와 아들이며 친정쪽 인물에는 대상인물의 형제, 종형제, 당숙 등 친정쪽 친척들이다. 마찬가지로 시가 인물은 남편의 형제, 시아버지, 남편의 종형제, 남편의 외숙 등 남편과 혈연으로 얽여 있는 사람이다. 표를 보면 여성 대상 전기문학의 저작자는 대부분 남편, 자식을 비롯한 친, 인척 관계의 사람이 저술했거나 그들의 부탁을 받은 사람에 의해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 유학자들을 대상으로 저술된 전기문학이 가문, 친인척 뿐 아니라 그들의 지식 공유를 통해 형성된 인적 관계와 개인적인 친분관계의 연장선으로 작용하는 것과는 비교된다.

그러므로 여성인물의 전기문학은 여성의 미시사를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질 뿐 아니라 당시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남성 지식인들이 유지하고 있던 인적 관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데이터는 여성의 생활상 혹은 교유관계를 명확히 밝히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한문 문헌을 저술하는 행위는 감춰야 할 일이었다. 후기에 접어들며 여성 문집이 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여성들은 언문으로 문필 활동을 이어나갔다.

품계	수	품계	수
貞敬夫人	41	貞敬夫人	104
貞夫人	46	貞夫人	193
淑夫人	13	淑夫人	171
淑人	38	淑人	361
令人	8	令人	26
恭人	10	恭人	83
宜人	7	宜人	50
安人	4	安人	9
端人	3	端人	18
孺人	62	孺人	322
기타	15	기타	85
합계	264	합계	1457

표 5 행장 대상인물의
신분

표 6 비지문 대상인물의
신분

위는 문집총간에서 전기문학의 대상이 된 여성의 신분을 정리한 표이다. 정경부인(貞敬夫人), 정부인(貞夫人), 숙부인(淑夫人), 숙인(淑人)은 고관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당상관(堂上官)을 남편으로 둔 여성의 품계이다. 비지문의 대상이 된 여성인물을 보면 당상관에 해당하는 여성 대상인물이 전체의 60%에 해당된다. 행장의 여성 대상인물 역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고관대작이 아닌 경우는 관직에 진출하지는 않았지만 학문으로 이름이 높은 남편을 둔 여성 인물(유인)의 비중이 매우 높다. 문집을 간행할 정도의 재산과 인맥을 보유하고 있는 집안이 대부분 고관의 집안이기 때문이다.

[추후 부연서술 필요]

III. 문헌인물관계 온톨로지 설계

1. 데이터 선행모델

1) 중국역대인물전기자료 데이터베이스(China Biographical Database(CBDB))

중국역대인물전기자료 데이터베이스(China Biographical Database(CBDB), 中國歷代人物傳記資料庫)는 미국 하버드 페어뱅크 중국학 연구센터와 타이완 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 및 중국 북경대학교 중국고대사연구센터가 공동으로 편찬하고 있는 인문학 데이터베이스이다. 7세기~12세기에 중국에서 활동한 인물 360,000명의 생몰년, 출신지, 저작정보 및 관직정보 등을 기본으로 하고, 친인척 관계, 학문 관계, 정치 관계, 군사 관계 등 500여 종으로 세분화된 인물과 인물 사이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기술하였다.¹⁶⁾

CBDB는 각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정해진 틀에 따라 정리하였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하나의 참고자료서 및 사전으로도 쓰일 수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비단 CBDB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CBDB는 단순히 특정 인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서술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역사인물 데이터베이스와는 차별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CBDB는 각 인물에 대한 정보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설계 규칙에 따라 인물의 기본정보(출생년도, 사망년도, 출생지 등)와 인맥관계(혈연관계와 사회관계), 관직정보 등으로 구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한 인물 개개인에 대한 연구 성과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전환하여 기계적 처리를 가능하게 하였다.¹⁷⁾

● 인물 데이터 설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대상 인물과 다른 인물들은 크기에 관계없이 사회, 혹은 경제적 소속 집단을 갖고 있으며 이로부터 다른 인물 혹은 사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CBDB에서는 인물의 상호작용을 규격화하기 위해 인물과 인물간의 관계를 정의하였다.(메타정보 정의)

CBDB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인물 메타데이터는 이름, 성별, 생몰년이다. 출생, 사망년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초기, 중기, 말기 혹은 미상으로 표기하였다.¹⁸⁾

16) 제도와 인사, 78

17) 제도와 인사...

18) Michael A. Fuller, 中國歷代人物傳記資料庫 用戶指南
(http://projects.iq.harvard.edu/files/chinesecbdb/files/cbdb_users_guide_ch_170126.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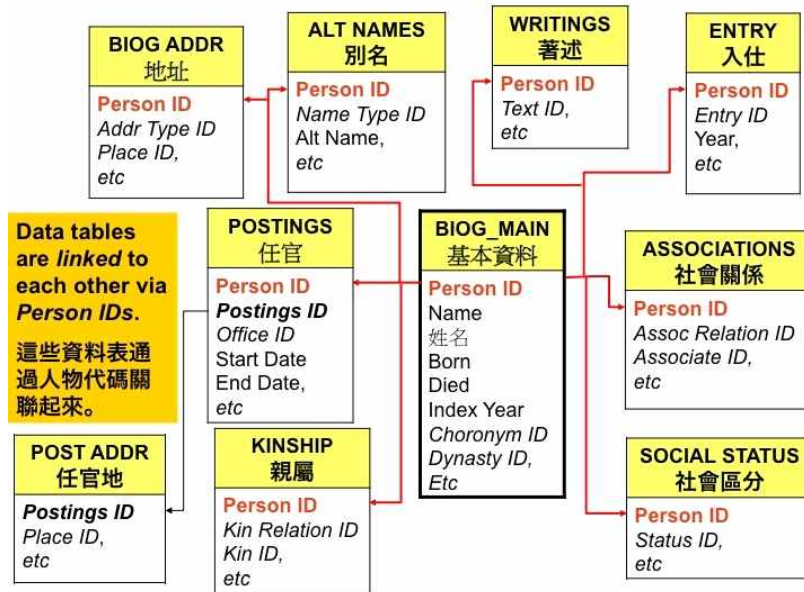


그림 2 China Biographical Database(CBDB) 인물 데이터 설계도
(이미지 출처19)

● 인물관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CBDB는 현재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 중 인물관계를 구분하는 데에 가장 자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인물관계는 크게 혈연관계와 사회관계로 나눌 수 있다.

① 혈연관계

혈연 관계를 구분하는 코드는 총 464가지이며 특정 인물코드 몇 가지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혈연관계를 표기할 때는 개인의 친척관계는 개인 A와 이에 응하는 개인 B(친족), 관계명 C로 구성되며 실제 데이터 상에는 왕안석, 왕안례, B-(兄)로 표기된다. 혈연 코드는 다음과 같이 9가지 관계를 기본으로 분류하고 있다.

19) Michael A. Fuller, 中國歷代人物傳記資料庫 用戶指南
(http://projects.iq.harvard.edu/files/chinesebdb/files/cbdb_users_guide_ch_170126.pdf)

혈연코드	설명
e	본인, 친척관계 검색의 중심 인물
F	아버지
M	어머니
S	아들
D	딸
Z	자매관계
B	형제관계
H	남편
W/C	본처/첩

표 7 China Biographical Database(CBDB) 혈연 코드(직접관계)

친족 유형의 관계 중에는 위와 같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한접적 관련성이 있는 다양한 변형 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CBDB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호를 통해 핵심 가족 이외의 가족관계 구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혈연코드	설명
+	연장자 예) B+ 형
-	연소자 예) Z- 여동생
*	입양된 계승자 예)S* 양자
°	입양된양된 사람
!	서출
^	후계자 예)S^ 지위를 계승하는 아들
1/2	피가 반만 섞인 관계 예)Z1/2 동복이부자매 혹은 동부이모자매
~	명목상의 관계 예)M~ 서출의 명목상 모친인 정처
%	혼인 관계인 부부(일정 시간 내에 혼례를 완료하지 않은 사이)
y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 예)Sy 막내 아들
1, 2, 3...	순서를 구분하는 단위. 예)S1, S2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예2)W1, W2 첫째 부인, 둘째 부인
n	어느 대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경우
G-#, G+#	직계선조(-), 직계자손(+)
G-n, G+n	어느 대인지 모르는 선조와 후손
Gn	직계혈족이지만 선후를 알 수 없는 경우
K, K-#, K+#, Kn	종친, 전대(-)와 후대(+의) 종친, 세대를 알 수 없는 종친(n). CBDB에서 사용하는 종친이라는 말은 때로는 친척관계를 실증하기도 하므로 오히려 확실한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K-, K+	동시대의 친족관계중 나이가 적거나(-), 많음(+), 경우
P, P-#, P+#, Pn	부모님의 형제자매. 항렬이 높거나(-), 낮거나(+), 세대를 알수 없는(n) 경우에 쓴다. (다만 Pn은 인물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만 이 코드를 사용한다.)
P-, P+	부친의 자매 혹은 모친의 형제자매가 낳은 동렬의 친척관계 중 나이가 적거나(-), 많음(+), 경우
A	남자, 혹은 여자쪽 인척, 혼사가 성사된 친척관계

표 8 China Biographical Database(CBDB) 혈연코드(간접관계)

c_kincode	c_kin_r1	c_kin_r2	c_kin_pai_r1	c_kin_pai_r2	c_kin_pai_r3	c_kinrel_ch	c_kinrel	c_kinrel_alt	c_picks	c_upstep	c_dwstep	c_maste	c_colstep
2	30	30				直系祖先	G-n	G-n, lineal ancestor, generation unknown	50	99	0	0	0
3	30	00	-1			妻之直系祖先	WG-n	Ancestor of wife	150	99	0	1	0

표 9 China Biographical Database(CBDB) 혈연정보 데이터 샘플

② 사회관계

CBDB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관계 코드는 총 461건이며 포괄적 사회관계, 학술관계, 정치관계, 저술관계, 군사관계, 의료관계, 종교관계, 가정관계, 재정관계로 구분하고 열 가지의 대분류 하에 각각의 소분류를 적용하였다. 사회관계는 혈연관계와 다른 표기방식을 사용한다.

혈연코드 : 인물, 관계인물, 관계코드

사회코드 : 인물, 관계명칭, 관계인물²⁰⁾

가. 직접관계

CBDB에서 기록의 인물이 다른 인물의 사회적 관계에 해당할 때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은 사회관계 유형의 종류를 늘리지 않는 것이었다. 사회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유하는 중에 일정하게 대칭되는 관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A는 B의 학생이다.’라는 관계가 있다면 ‘B는 A의 스승이다’라는 관계어도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이 대칭되는 관계가 생성되는 것을 직접관계라고 한다. 사회 관계종류가 생성될 때에 반드시 대응되는 관계가 생긴다.

나. 간접관계

일련의 중요한 사건 가운데 사회관계는 간접적으로 조직되기도 한다. CBDB에서는

20) Michael A. Fuller, 中國歷代人物傳記資料庫 用戶指南 (http://projects.iq.harvard.edu/files/chinese_cbdb/files/cbdb_users_guide_ch_170126.pdf)

이러한 관계 유형 명시하기 위해 X, 혹은 Y라는 인칭대명사를 활용하였다. 중국 전 근대사회는 통상적으로 복잡한 관계망을 갖고 있는데, CBDB는 관계망의 표격을 추적하여 이로써 대량의 필드를 사용하고 있다.

번호	사회관계코드(Eng)	사회관계코드(Chi)	해석
145	Sacrificial prayer written for	為Y作祭文	Y을 위해 제문을 쓰다
146	Sacrificial prayer written by	祭文由Y所作	Y에 의해 제문이 쓰여지다
147	Invocation prayer written for	為Y作祝詞	Y을 위해 축사를 쓰다
148	Invocation prayer written by	祝詞由Y所作	Y에 의해 축사가 쓰여지다
151	Ancestral stele or records written for	為Y作世系碑記	Y을 위해 세계비문을 쓰다
152	Ancestral stele or records written by	世系碑記由Y所作	Y에 의해 세계비문이 쓰여지다.
160	Temple stele(miaobei) written for	為Y作廟碑記	Y을 위해 廟碑記을 쓰다
161	Temple stele(miaobei) written by	廟碑記由Y所作	Y가 廟碑記을 쓰다
166	Lamentation prayer written by	哀辭由Y所作	Y에 의해 哀辭가 쓰여지다
167	Lamentation prayer written for	為Y作哀辭	Y을 위해 哀辭을 쓰다
237	Nianpu composed by	年譜由Y所作	Y에 의해 연보가 지어지다
238	Nianpu composed for	為Y作年譜	Y를 위해 연보가 지어지다
239	Buddhist temple stele written for	為Y作佛寺記	Y를 위해 탑비가 쓰여지다
240	Buddhist temple stele written by	佛寺記由Y所作	Y에 의해 탑비가 쓰여지다
241	Funerary stele seal done by	神道碑額篆由Y所作	Y에 의해 신도비의 문장이 작성되다
242	Funerary stele seal done for	為Y之神道碑作額篆	Y를 위해 신도비의 문장이 작성되다
321	Beiyin composed by	碑陰為Y所作	Y에 의해 碑陰이 쓰여지다
322	Beiyin composed for	為Y作碑陰	Y를 위해 碑陰이 쓰여지다
325	Postscripted stele for	[併入334]	Y의 탑비에 후기가 쓰여지다
326	Stele for postscripted by	[併入333]	Y에 의해 탑비에 후기가 쓰여지다
333	Epitaph postface by	墓誌銘由Y作跋	Y가 묘비명에 발문을 쓰다
334	Epitaph postface for	為Y之墓誌銘作跋	Y를 위해 묘비명에 발문을 쓰다
405	Funerary stele written by	神道碑由Y所作	Y에 의해 神道碑가 쓰여지다
406	Funerary stele written for	為Y作神道碑	Y를 위해 神道碑가 쓰여지다
409	Tomb stone (mubiao) written by	墓表由Y所作	Y에 의해 墓表가 쓰여지다
410	Tomb stone (mubiao) written for	為Y作墓表	Y를 위해 墓表가 쓰여지다
413	Epitaph preface by	墓誌銘序由Y所作	Y에 의해 묘지명의 서문이 쓰여지다
414	Epitaph preface for	為Y墓誌銘作序	Y를 위해 묘지명의 서문이 쓰여지다
415	Funerary stele preface by	神道碑序由Y所作	Y에 의해 神道碑의 서문이 쓰여지다
416	Funerary stele preface for	為Y神道碑作序	Y를 위해 神道碑의 서문이 쓰여지다
417	Funerary stele postface by	神道碑跋由Y所作	Y에 의해 神道碑의 발문이 쓰여지다
418	Funerary stele postface for	為Y神道碑作跋	Y를 위해 神道碑의 발문이 쓰여지다
419	Tomb stone preface by	墓表序由Y所作	Y에 의해 묘표의 서문이 쓰이다
420	Tomb stone preface for	為Y墓表作序	Y를 위해 묘표의 서문을 쓰다
421	Tomb stone postface by	墓表跋由Y所作	Y에 의해 묘표의 발문이 쓰이다
422	Tomb stone postface for	為Y墓表作跋	Y를 위해 묘표의 발문을 쓰다
423	Elegy written by	挽詩、詞由Y所作	Y에 의해 추모시가 쓰이다

424	Elegy written for	為Y作挽詩、詞	Y를 위한 추모시를 쓰다
425	Biographical sketch (xingzhuang) written by	行狀由Y所作	Y에 의해 행장이 쓰이다
426	Biographical sketch (xingzhuang) written for	為Y作行狀	Y를 위한 행장을 쓰다
497	living person shrine inscription for	為Y之生祠作記	Y를위해生祠제문을짓다
498	living person shrine inscription by	其生祠由Y作記	Y에의해生祠제문을짓다
523	wrote colophon to the record of conduct of	為Y之行狀作跋	Y를 위한 행장의 발문을 짓다
524	colophon to record of conduct written by	行狀跋由Y所作	Y에 의해 행장의 발문이 지어지다
525	wrote colophon to the family biography of	為Y之家傳作跋	Y의 가전(家傳)의 발문을 짓다
526	colophon to the family biography written by	家傳跋由Y所作	Y에 의해 가전(家傳)의 발문이 쓰이다
537	colophon to sacrificial prayer written by	祭文跋由Y所作	Y에 의해 제문의 발문이 지어지다
538	wrote colophon to sacrificial prayer for	為Y祭文作跋	Y를 위해 제문의 발문을 짓다

표 10 China Biographical Database(CBDB) 사회관계 코드(간접)

c_assoc_code	c_assoc_pair	c_assoc_desc	c_assoc_esc_chn	c_assoc_role_type	c_assoc_rtrd	example
-1	-1	[Missing Data]	[缺乏信息]			
0	0	[Undefined]	未詳		1	
1	0	Listed in Yuanyou coalition register (元祐黨)	入元祐黨籍者	A	109	

표 11 China Biographical Database(CBDB) 데이터 샘플

● 문헌 데이터 설계

CBDB에서는 인물과 관련된 문건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비각, 기타 고문서 자료, 영인 및 필사된 인쇄본이다. 예를 들어 황중의의 《宋元學案》은 초기 작품 중 학술 개요를 정리한 총서인 동시에 어떤 인물의 창작물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또한 고문서 자료는 몇몇 학자들에 의해 필사되기도 한다. 전, 현대 문서 유형의 구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사용처가 얼마나 많은지도 명확하지 않다. 때문에 CBDB에서는 위의 세 가지 유형을 모두 문건이라는 항목으로 묶었다. 문건 항목의 구성은 표제, 작품유형, 유과, 출간일, 출간한 사람, 출판된 장소이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는 작자, 간행인, 편찬인, 등으로 인물 자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건은 전기데이터의 기원?이기 때문에 CBDB는 사용된 현대 판본에서는 페이지를 포함하는 틀판 데이터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특정 작자의 현존하는 판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판본의 신뢰도와 같은 주관적 데이터는 포함하지 않았다.

2) 한국사LOD

한국사LOD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LOD서비스이다. 다양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역사 관련 데이터를 가공해 약 4000여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한국사LOD는 인물-사건을 중심으로 유물유적정보, 인물정보, 사건정보를 아우르고, 이를 위해 150가지 이상의 속성 정보를 설계하였다. 인물과 인물의관계를 명시하기 위해 두 가지 체계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인물 사이의 사회관계는 object property값, 혈연관계는 data property값을 사용한다.

Schema Property		
1 st Property	2 nd Property	
personObjectInfo		인물과 연관된 정보들의 집합
	hasAdmirer	사숙
	hasCompanionship	교육/동료
	hasDisciple	제자
	hasTeacher	스승

위의 표와 같이 사회관계를 personObjectInfo라는 코어 프로퍼티의 하위속성에 배치하고 혈연관계는 personDataInfo라는 속성값으로 구분한다.

person DataInfo			nikh	인물에 대한 데이터 정보
	family		nikh	가계도 정보
		hasBrother		형제
		hasChild		자녀
		hasConcubine		처
		hasFather		부
		hasGrandFather		조부
		hasGrandMother		조모
		hasGrandSon		손자
		hasMother		모
		hasRelative		기타
		hasRoyalConcubine		후궁
		hasSister		누이
		hasWife		배우자
		hasRealFather		생부
		hasRealMother		생모

3) Encyclopedic Archives of Korean Culture(Encyves)

Encyclopedic Archives of Korea Culture(Encyves)는 201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의 이름이다. 한글고문서, 궁중기록화, 민족기록화, 승탑비문 네 가지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연관성이 있는 인물, 장소, 개념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온톨로지를 구축하였다.

인물-문헌, 인물-인물에 대해 다루고 있는 한글고문서 분야의 온톨로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글고문서는 총 세부 항목을 포괄하는 38가지 관계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고와 유사성을 보이는 관계어는 25개이다.

관계어	해석	domain	range
A dcterms:creator B	A는 B에 의해 저술되었다	전시자료, 문헌	인물
A dcterms:publisher B	A는B에의해출간되었다	문헌, 전시자료	인물
A ekc:mentions B/B ekc:isMentionedIn A	A는 B를 언급하였다 / B는 A에 언급되었다	전시자료	인물
A ekc:mentions B/B ekc:isMentionedIn A	A는 B를 언급하였다 / B는 A에 언급되었다	문헌	인물

A ekc:depicts B/B ekc:isDepictedIn A	A는 B를 묘사하였다 / B는 A에 묘사되었다	전시자료	인물
A ekc:isNamesakeOf B	A는 B에서 이름을 따다	문헌	인물
A edm:isRelatedTo B	A는 B와 관련이 있다 / B는 A와 관련이 있다	인물, 문헌	인물
A ekc:hasWife B/B ekc:hasHusband A	A는 B의 남편이다 / B는 A의 아내이다	인물	인물
A ekc:hasConcubine B/B ekc:isConcubineOf A	A는 첩 B를 두었다 / B는 A의 첩이다	인물	인물
A ekc:hasSon B/B ekc:hasFather A	A는 아들 B를 두었다 / B는 아버지 A가 있다	인물	인물
A ekc:hasSon B/B ekc:hasMother A	A는 아들 B를 두었다 / B는 어머니 A가 있다	인물	인물
A ekc:hasDaughter B/B ekc:hasFather A	A는 딸 B를 두었다 / B는 아버지 A가 있다	인물	인물
A ekc:hasDaughter B/B ekc:hasMother A	A는 딸 B를 두었다 / B는 어머니 A가 있다	인물	인물
A ekc:hasAdoptedHeirB	A는 양자 B를 두었다	인물	인물
A ekc:hasBrother B	A는 형제 B가 있다	인물	인물
A ekc:hasSister B	A는여형제B가있다	인물	인물
A ekc:hasDescendant B/B ekc:hasAncestor A	A는 B의 선조이다 / B는 A의 후손이다	인물	인물
A ekc:isLineageKinOf B/B ekc:isLineageKinOfA	A는 B와 같은 혈족이다 / B는 A와 같은 혈족이다	인물	인물
A ekc:isAffinalKinOf B/B ekc:isAffinalKinOf A	A는 B와 인척 관계이다 / B는 A와 인척 관계이다	인물	인물
A foaf:member B	A는 B를 구성원으로 갖는다	인물	인물
A ekc:hasDisciple B/B ekc:hasMaster A	A는 B의 스승이다 / B는 A의 제자이다	인물	인물
A ekc:hasSubject B/B ekc:isSubjectOf A	A는 B를 수하로 두었다 / B는 A의 신하이다	인물	인물
A ekc:hasOwner B/B ekc:isOwnerOf A	A는 B의 노비이다 / B는 A의 주인이다	인물	인물
A foaf:knows B	A는 B와 교유하였다 / B는 A와 교유하였다	인물	인물

2. 온톨로지 설계

본 장에서는 앞서 수집한 데이터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문헌정보와 인물정보를 아우르는 통합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고자 한다. 행장, 연보 등의 문헌은 그 문헌을 저술한 저작자와 문헌의 대상이 되는 피전자가 반드시 발생한다. 이를 토대로 연구자들은 저작자와 피전자와의 인물 관계망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학자 개인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양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 때문에 문헌을 중심으로 한 인물 관계 연구는 특정 인물과 특정 인물간의 관계로 제한되거나, 아주 좁은 범위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문헌-인물관계 온톨로지는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류 문헌 자료와 인물의 관계를 정의하고 고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인물-인물간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연구의 범위를 넓혀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문헌과 인물, 인물과 문헌, 인물과 인물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의미 있는 요소로 재정립할 것이다. 인물과 문헌 정보 요소를 기술하는 각각의 부분을 설계하고, 동시에 이를 의미적으로 재구성할 것이다.

1) 클래스

Class	Label	Definition
foaf:Person	인물	행위자, 혹은 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
dpr:Document	텍스트	한문으로 쓰여진 텍스트. 이 설계에서는 전기문학을 가리킨다.
dpr:Collection	문집	한문 텍스트를 정리, 간행한 고문헌 자료

(1) Person

Person 클래스는 한국문집총간 편목색인의 인물, 한국문집총간 해제의 인물, 역대 인물종합정보시스템 만가보와 사가족보의 인물, 과거 합격자인 인물, 4가지의 인물 클래스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설계하였다.

Class	Data Property	Definition
foaf:Person	ID	식별자
	rdfs:label	이름
	dpr:yearsOfBirth	생년
	dpr:yearsOfDeath	몰년
	dpr:nickname	자(字)
	dpr:penname	호(號)
	dpr:phname	시호(諡號)
	dpr:clan	본관
	dpr:sex	성별
	dpr:reference	출전

(2) Collection

Collection은 문집총간 해제에 등장하는 문집의 값이다. 한국문집총간의 문집 ID를 식별자로 사용하였으며 증보판 혹은 재간본의 경우 원본을 우선 적용하였다. 문집은 저자가 일생동안 저술한 글을 모아놓은 콜렉션과 같은 개념이므로 이와 같이 명명하였다.

Class	Data Property	Definition
dpr:Document	DCI	식별자
	rdfs:title	제목
	dpr:style	문체
	dpr:locationIC	시작페이지 위치
	dpr:primary	주보 (전기자료로서의 속성이 분명한가의 여부)
	dpr:reference	출전

(3) Document

pr:Document는 한국문집총간 편목색인 검색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전장류, 애제류, 비지류 문서에 대한 클래스이다. 전기적 성격이 강한 전장류와 망자에 대한 애도, 문학적 성격이 강한 애제, 비지류를 속성값으로 구별하였다.

Class	Data Property	Definition
dpr:Collection	CID	식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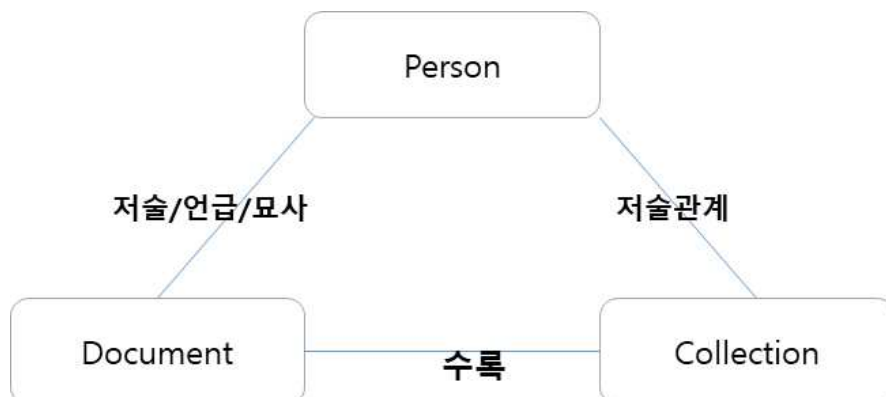
	rdfs:title	제목
	dpr:altertitle	이칭
	dpr:yearsOfDeath	간행년
	dpr:nickname	권책
	dpr:penname	소장처
	dpr:reference	출전

3) 관계속성

(1) 문헌자료설계

한국문집총간 전기류 편목색인에서 제공하는 편목 색인 데이터는 각각의 전기류 자료와 자료가 수록된 문집명과 아이디, 편목의 저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의 문집에 여러 인물의 글이 수록되기도 하는 문집의 특성 상 편목의 저작자와 문집의 저자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송시열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자료 106건 가운데 송자대전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36건이며, 이 중 송시열 본인이 저술한 글은 9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문집 정보를 편목의 속성 정보로 둔다면 문집 저자와 편목 저자가 충돌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전기류 문서 자료의 데이터 프로퍼티에서 문집을 제외시키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한국문집총간의 해제 데이터를 문집 클래스로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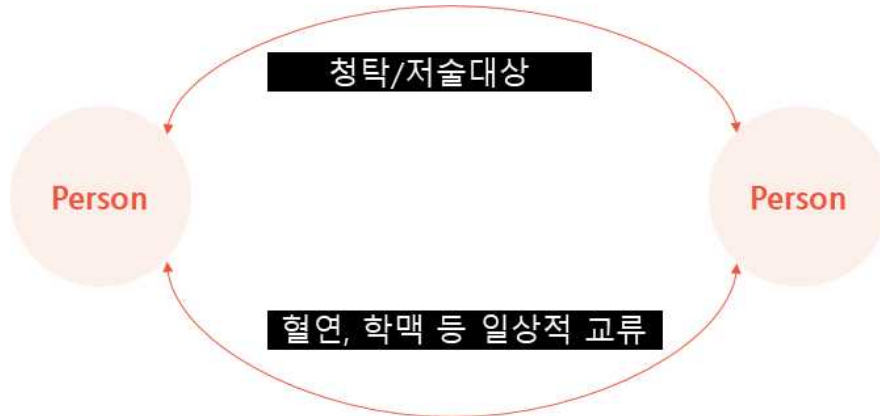


관계 설계는 특정 전기류 자료가 저술됨에 따라 인물과 인물간의 관계가 발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관계는 일반적인 사회관계속성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문체의 맥락을 참조하여 보다 정밀한 관계 속성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수백, 수천가지의 문체를 하나하나 관계 속성으로 설정한다면 지나치게 많은 관계속성이 발생되어 추후 활용에 있어서 불편이 야기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관계를 모든 요소와 연결할 수 있는 공백 노드를 별도의 타입을 지닌 클래스로 설계하였다.

Property	Definition	Domain	Range
dcterms:hasPart	포함된다	dpr:Document	dpr:Collection
dcterms:creator	저술하였다	foaf:Person	dpr:Collection
ekc:isDedicatedIn	주된 묘사 대상	foaf:Person	dpr:Document
ekc:isMentionedIn	언급하였다	foaf:Person	dpr:Document
postscriptedFor	묘비에 후기가 쓰여지다	dpr:Document	dpr:Document
sacrificialPrayerWrittenBy	~에 의해 제문이 쓰여지다	dpr:Document	foaf:Person
invocationPrayerWrittenBy	~에 의해 축사가 쓰여지다	dpr:Document	foaf:Person
ancestralSteleOrRecordsWrittenBy	~에 의해 세계비문이 쓰여지다.	dpr:Document	foaf:Person
templeSteleWrittenBy	~에 의해 廟碑記이 쓰여지다	dpr:Document	foaf:Person
lamentationPrayerWrittenBy	~에 의해 哀辭가 쓰여지다	dpr:Document	foaf:Person
nianpuComposedBy	~에 의해 연보가 지어지다	dpr:Document	foaf:Person
buddhistTempleSteleWrittenBy	~에 의해 탑비가 쓰여지다	dpr:Document	foaf:Person
funerarySteleSealDoneBy	~에 의해 신도비의 문장이 작성되다	dpr:Document	foaf:Person
beiyinComposedBy	~에 의해 碑陰이 쓰여지다	dpr:Document	foaf:Person
epitaphPostfaceBy	~에 의해 묘비명에 발문이 쓰여지다	dpr:Document	foaf:Person
funerarySteleWrittenBy	~에 의해 神道碑가 쓰여지다	dpr:Document	foaf:Person
tombStoneWrittenBy	~에 의해 墓表가 쓰여지다	dpr:Document	foaf:Person

epitaphPrefaceBy	~에 의해 묘지명의 서문이 쓰여지다	dpr:Document	foaf:Person
funeraryStelePrefaceBy	~에 의해 神道碑의 서문이 쓰여지다	dpr:Document	foaf:Person
funeraryStelePostfaceBy	~에 의해 神道碑의 발문이 쓰여지다	dpr:Document	foaf:Person
tombStonePrefaceBy	~에 의해 묘표의 서문이 쓰이다	dpr:Document	foaf:Person
tombStonePostfaceBy	~에 의해 묘표의 발문이 쓰이다	dpr:Document	foaf:Person
elegyWrittenBy	~에 의해 추모시가 쓰이다	dpr:Document	foaf:Person
biographicalSketchWrittenBy	~에 의해 행장이 쓰이다	dpr:Document	foaf:Person
livingPersonShrineInscriptionBy	~에 의해 생祠제문이지어지다	dpr:Document	foaf:Person
colophonToRecordOfConductWrittenBy	~에 의해 행장의 발문이지어지다	dpr:Document	foaf:Person
colophonToTheFamilyBiographyWrittenBy	~에 의해 가전(家傳)의 발문이 쓰이다	dpr:Document	foaf:Person
colophonToSacrificialPrayerWrittenBy	~에 의해 제문의 발문이지어지다	dpr:Document	foaf:Person
funerarySteleRequestedBy	~에 의해 神道碑가 요청되다	dpr:Document	foaf:Person

(4) 인물-인물 관계 설계



- 인물A가 인물B 위해 제문을 쓰다, 만사를 쓰다 등과 같이 인물간 관계가 발생했을 때 사용한다.
- 인물간 혈연, 학연, 등 일상적인 교류를 정의한다.
- 인물관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의하므로 세부 항목을 추가하였음

Property	Definition	Domain	Range
sacrificialPrayerWrittenFor	~을 위해 제문을 쓰다	foaf:Person	foaf:Person
invocationPrayerWrittenFor	~을 위해 축사를 쓰다	foaf:Person	foaf:Person
ancestralSteleOrRecordsWrittenFor	~을 위해 세계비문을 쓰다	foaf:Person	foaf:Person
templeSteleWrittenFor	~을 위해 廟碑記을 쓰다	foaf:Person	foaf:Person
lamentationPrayerWrittenFor	~을 위해 哀辭을 쓰다	foaf:Person	foaf:Person
nianpuComposedFor	~를 위해 연보가 지어지다	foaf:Person	foaf:Person
buddhistTempleSteleWrittenFor	~를 위해 탐비가 쓰여지다	foaf:Person	foaf:Person
funerarySteleSealDoneFor	~를 위해 신도비의 문장이 작성되다	foaf:Person	foaf:Person

beiYinComposedFor	~를 위해 碑陰이 쓰여지다	foaf:Person	foaf:Person
stelaForPostscriptedBy	~에 의해 탐비에 후기가 쓰여지다	foaf:Person	foaf:Person
epitaphPostfaceFor	~를 위해 묘비명에 발문을 쓰다	foaf:Person	foaf:Person
funerarySteleWrittenFor	~를 위해 神道碑가 쓰여지다	foaf:Person	foaf:Person
tombStoneWrittenFor	~를 위해 墓表가 쓰여지다	foaf:Person	foaf:Person
epitaphPrefaceFor	~를 위해 묘지명의 서문이 쓰여지다	foaf:Person	foaf:Person
funeraryStelePrefaceFor	~를 위해 神道碑의 서문이 쓰여지다	foaf:Person	foaf:Person
funeraryStelePostfaceFor	~를 위해 神道碑의 발문이 쓰여지다	foaf:Person	foaf:Person
tombStonePrefaceFor	~를 위해 묘표의 서문을 쓰다	foaf:Person	foaf:Person
tombStonePostfaceFor	~를 위해 묘표의 발문을 쓰다	foaf:Person	foaf:Person
elegyWrittenFor	~를 위한 추모시를 쓰다	foaf:Person	foaf:Person
biographicalSketchWrittenFor	~를 위한 행장을 쓰다	foaf:Person	foaf:Person
livingPersonShrineInscriptionFor	~를 위해 生祠제문을 짓다	foaf:Person	foaf:Person
wroteColophonToTheRecordOfConductOf	~를 위한 행장의 발문을 짓다	foaf:Person	foaf:Person
wroteColophonToSacrificialPrayerFor	~를 위해 제문의 발문을 짓다	foaf:Person	foaf:Person
RequestedEpitaphFrom	~에게 타인(3자)의 묘지명을 써주기를 부탁하다.	foaf:Person	foaf:Person

epitaphWrittenAtTheRequestOf	~의부탁으로타인(제3자)의묘지명을쓰다	foaf:Person	foaf:Person
requestedEpitaphFor	제3자에게 ~를 위한 묘지명을 요청받다	foaf:Person	foaf:Person
epitaphRequestedBy	묘지명을 ~가 제3자에게 요청하다.	foaf:Person	foaf:Person
funerarySteleRequestedFor	~에게神道碑를써줄것을 요청하다	foaf:Person	foaf:Person
tombStoneRequestedBy	~에의해墓表가요청되다	foaf:Person	foaf:Person
tombStoneRequestedFor	~에게墓表를써줄것을요청하다	foaf:Person	foaf:Person
requestedAPrefaceFrom	~에게서(序를쓰는것을 요청하다	foaf:Person	foaf:Person
requestedAnInscriptionFrom	~에게기(記)를쓰는것을 요청하다	foaf:Person	foaf:Person
prefaceRequestedBy	~의서(序)를써달라는요청을받다	foaf:Person	foaf:Person
inscriptionRequestedBy	~의기(記)를써달라는요청을받다	foaf:Person	foaf:Person
requests governmentActFor	~를위해어떤일을요청하다	foaf:Person	foaf:Person
governmentActRequestedBy	~에게어떤일을요청받다	foaf:Person	foaf:Person
ekc:isDiscipleOf	제자	foaf:Person	foaf:Person
ekc:isFellowOf	동문	foaf:Person	foaf:Person
foaf:knows	교유관계	foaf:Person	foaf:Person

hasAdopedSon	서류상의 아들	foaf:Person	foaf:Person
hasAncestor	조상	foaf:Person	foaf:Person
hasBrother	남자형제	foaf:Person	foaf:Person
hasBrotherIL	처남, 매형, 동서관계	foaf:Person	foaf:Person
hasCousin	사촌	foaf:Person	foaf:Person
hasDescendant	조상	foaf:Person	foaf:Person
hasFatherIL	장인, 시아버지	foaf:Person	foaf:Person
hasFrاندFather	친구 아버지	foaf:Person	foaf:Person
hasGGChild	증조손	foaf:Person	foaf:Person
hasGGGChild	고조손	foaf:Person	foaf:Person
hasGrandChild	손자	foaf:Person	foaf:Person
hasGrandNephew	종조카	foaf:Person	foaf:Person
hasHusband	남편	foaf:Person	foaf:Person
hasMother	어머니	foaf:Person	foaf:Person
hasNeighbors	이웃	foaf:Person	foaf:Person
hasNephew	조카	foaf:Person	foaf:Person
hasRelation	친척	foaf:Person	foaf:Person
hasChind	자식	foaf:Person	foaf:Person
hasSonIL	사위	foaf:Person	foaf:Person
isRelatedTo	관계가 모호한 사람	foaf:Person	foaf:Person

IV. 문헌-인물관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

1.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구축

1)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문헌-인물 관계 데이터는 《한국문집총간》의 편목색인 검색서비스와 의 자료를 토대로 《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Encyves》 등의 인물 데이터를 매칭하는 방법으로 구축하였다.

(1) 문헌데이터 : 한국문집총간

한국문집총간 《韓國文集叢刊》은 역대 한국의 문집을 총망라한 한국판 사고전서(四庫全書)로 정편350책, 속편 150책으로 총 500책으로 구성되었다. 정편 350책에는 신라 최치원의 《계원필경집》, 송시열의 《송자대전》 정조의 《홍재전서》 등 한국의 대표적인 인물 662명의 문집 663종을 수록하였다.²¹⁾

한국문집총간 전기류 편목색인은 2017년부터 고전번역원에서 제공하는 상세검색 서비스 중 하나이다.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된 전기류(傳記類), 서발류(序跋類) 등의 작품을 대상이 되는 인물, 도서, 건축물 등의 키워드로 모아 정리하고 관련 정보를 부기하여 웹DB로 제공하는 전문검색 서비스로서, 20,497건의 인물 자료, 62,840건의 문집 정보를 구축하였다. 현재 서비스 중인 전기류 편목색인은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된 각종 전기자료를 수집해 피전자별로 정리함으로써 이용자가 인물에 대한 자료를 한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기획된 색인이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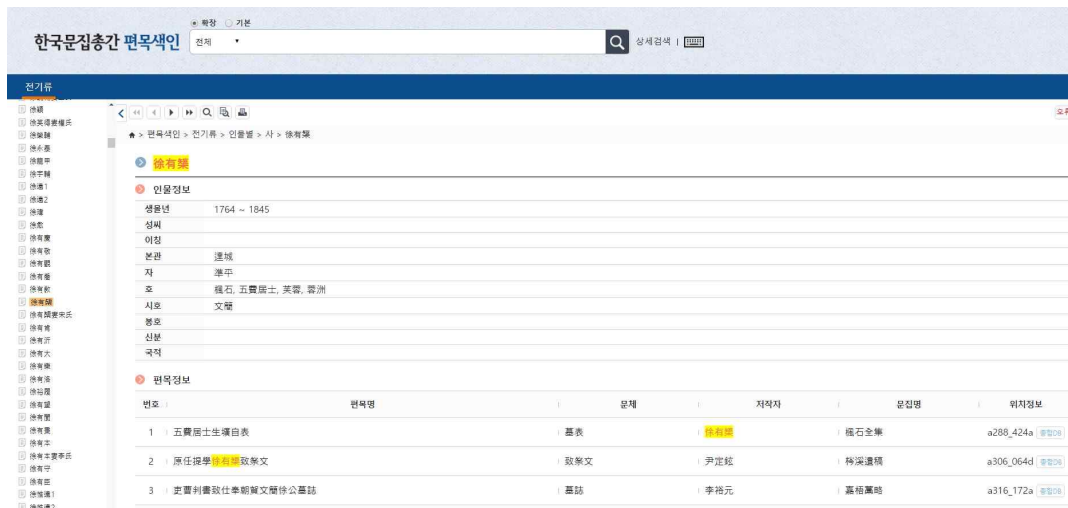


그림 5 한국문집총간 편목색인검색 사이트

21) 한국고전종합DB DB소개, 통계. (<http://db.itkc.or.kr/etc/desc?type=special>)

22) 한국고전종합DB DB소개, 통계. (<http://db.itkc.or.kr/etc/desc?type=special>)

원본 데이터는 피전자에 대한 인물 정보와 해당 전기자료의 서지정보로 나눌 수 있다. 피전자에 대한 정보는 성명과 생몰년, 본관, 자, 호, 각종 이칭과 신분을 모두 포함하였고 여자는 가족관계를 표기하였다. 전기자료의 수록 범위는 일반적인 비지전장류(碑誌傳狀類)뿐만 아니라 연보, 세계, 유사, 제문, 애사, 만시, 책문에 이르기까지 해당 인물에 대한 모든 기록을 포함하며 출전과 작자를 함께 표시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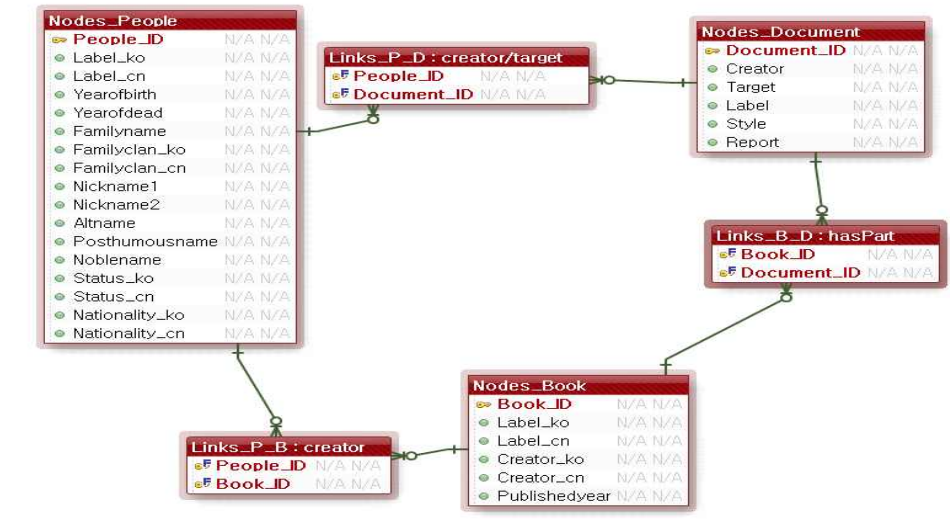


그림 6 한국문집총간 편목색인 데이터 스키마(추정)

2) 한국문집총간 해제

한국고전종합DB에서 제공하는 한국문집총간 해제는 문집 1259건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서지사항 뿐 아니라 저자의 가계와 행력과 같이 사용자가 작품의 배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크게 형태서지, 저자의 기본 정보, 저자의 가계 및 행력, 문집의 간행과정과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형태서지에서는 문집의 제목과 간행년, 간종, 권책의 분량, 소장처와 같은 서지정보가 담겨 있다. 저자에 대해서는 생몰년, 자, 호, 본관 등의 기본 정보 뿐 아니라 저자의 교유관계, 사승관계를 서술한다. 아래로는 저자의 가계도와 행력이 나열되어 있다. 해제 자료의 데이터는 XML 형식을 갖추고 있어 이를 이용해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인명과 지명에 태그값을 부여한

23) 한국고전종합DB DB소개, 통계. (<http://db.itkc.or.kr/etc/desc?type=special>)

한국문집총간 원문 자료와 달리 문집총간 해제는 자료의 형식을 유지하는 태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집총간 해제에서 제공하는 자료에서 자동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정보는 서지형태, 저자의 인적사항, 연호 등으로 제한된다. 다음은 문집총간해제에서 제공하는 XML 텍스트의 형식이다.

```

<문집해제 id="kc_mh_0" org="한국고전번역원">
  <본문 id="kc_mh_b226">
    <문집제목 문집제목한글="남포집">南圃集</문집제목>
    <형태서지>
      <형태서지내용 id="1">
        <권수제>남포선생집(南圃先生集)</권수제>
        <판심제>남포선생집(南圃先生集)</판심제>
        <간종>활자본(木活字)</간종>
        <간행년 절대연대="1831">1831년 간행</간행년>
        <권책>원집(原集) 16권, 부록(附錄) 2권 합 6책</권책>
        <행자>10행 20자</행자>
        <규격>25.7×18.1(cm)</규격>
        <어미>上一葉花紋魚尾</어미>
        <소장처>권1~3, 권8~16, 부록 :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권4~7 : 경인문화사(景仁文化社) 영인본(影印本)</소장처>
        <소장도서번호>권1~3, 권8~16, 부록 : 고4B1-남845ㄱ, 권4~7 : 없음</소장도서번호>
        <총간집수>한국문집총간 속 36</총간집수>
      </형태서지내용>
    </형태서지>
  <문집저자>
    <성명>金萬英</성명>
    <한글성명>김만영</한글성명>
    <생년 절대연대="1624">1624년(인조 2)</생년>
    <몰년 절대연대="1671">1671년(현종 12)</몰년>
    <자>영숙(英叔), 군실(羣實)</자>
    <호>남포(南圃)</호>
    <본관>당악(棠岳)</본관>
    <시호 />
    <특기사항>이수인(李壽仁) 등과 교류</특기사항>
  </문집저자>
  <행력>
    <행력기사 id="1">
      <묘호 묘호연수="2">인조</묘호>
      <서기 시작연도="1624" 종료연도="1624">1624</서기>
      <간지>갑자</간지>
      <연호 연호연수="4">天啓</연호>
    </행력기사>
  </행력>
</문집해제>

```

```

<연령>1</연령>
<행력기사내용>2월 17일, 羅州 龜業里에서 태어나다.</행력기사내용>
</행력기사>
</행력>
<편찬및간행>
<편찬기사내용>
<단락 align="left" indent="0">저자의 유문은……1831년 金裕憲이 쓴 後序와 韓
用幹이 쓴 新刊跋을 보면, 저자의 5대손 金亮國이 찾아와 저자의 遺集 2책을 보여주면서
序跋을 요청했다고 되어 있다.</단락>
</편찬기사내용>
<편찬기사전거>後序(金裕憲 撰), 新刊跋(韓用幹 撰), 舊跋(李玄逸 撰), 後敘(沈啓錫
撰), 本集內容 등에 의함</편찬기사전거>
</편찬및간행>
<구성과내용>
<구성기사내용>
<단락 align="left" indent="0">본집은 原集 16권, 附錄 2권 합 6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卷首에 金裕憲의 後序, 韓用幹의 新刊跋, 李玄逸의 舊跋, 目錄이 있다.</단락>
</구성기사내용>
</구성과내용>
<필자>이승현(李承炫)</필자>
</본문>
</문집해제>

```

표 21 한국문집총간해제의 XML 텍스트 예시

(2)인물 데이터 :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은 고조선에서 현대까지 29,235명의 성씨, 본관, 관직 정보와 같은 신상정보가 기재된 인물사전을 토대로 삼고, 문과 급제자 15,150명, 무과 급제자 25,901명, 생원진사시 합격자 42,048명, 관인정보 50,791명 등의 정보를 수집, 구축한 역사 인물 데이터베이스이다.²⁴⁾ 이렇게 모인 약 16만건의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 디렉토리로 분류된다. 인물의 일생을 다루는 인물생애정보와 과거 합격 이력을 제공하는 과거 및 취재, 관직 근무활동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관인정보이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역대인물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록된 인물에게 고유 식별자를 부여한다. UCI를 통해 일차적으로 동명이인 식별과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이를 매개로 각각의 디렉토리에서 다른

24)한 국 역 대 인 물 종 합 정 보 시 스템 .
<http://people.aks.ac.kr/front/board/info/introduction.aks?isEQ=true&kristalSearchArea=P.2019.05.31.>

디렉토리의 정보를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계 방식은 대부분 하이퍼 링크를 이용한 직접연결 방식을 사용한다.²⁵⁾ 이를 통해 아래와 같이 모든 정보를 통합하는 사전을 만들지 않더라도 필요한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The screenshot shows a web interface for a historical figure's profil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과거 및 취재' and a search bar. Below that, the name '김성일(金誠一)' is displayed.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상세정보**: Includes '자료수정내역' and '[원문이미지보기]'.
- [문과] 선조(宣祖) 1년(1568) 무진(戊辰)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23위(33/33)**
- [인물요약]**: A table of key information:

· UCI	G002+AKS-KHF_13AE40C131C77CB1538X0
· 자(字)	사순(士純)
· 호(號)	학봉(鶴峰)
· 시호(諡號)	문충(文忠)
· 생년	무술(戊戌) 1538년 (중종 33)
· 종년	계사(癸巳) 1593년 (선조 26)
· 본인본관	의성(義城)
· 거주지	안동(安東) 【補】 (주1)
- [관련정보]**: Links to related information:
 - [사전] 인물 생애 정보
 - [진사] 명종(明宗) 19년(1564) 갑자(甲子) 식년시(式年試) [진사] 2등(二等) 19위(24/100)
- [이력사항]**: A table of career details:

· 선발인원	33명 [甲3·乙7·丙23]
· 전력	진사(進士)
· 관직	경상감사(慶尙監司)

그림 7 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UCI 연결 예시

25)한 국 역 대 인 물 종 합 정 보 시 스 템 .
 (<http://people.aks.ac.kr/front/board/info/introduction.aks?isEQ=true&kristalSearchArea=P.2019.05.31.>)

2. 데이터 구축 현황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록문학은 총 2980건이며 대상인물이 된 여성은 1889명이다. 2980건의 문서 가운데 남편의 관직 기록이 조회되는 경우는 1850건, 남편의 관력이 데이터로 남아있지 않거나 관직을 역임하지 않은 경우는 673건이다.

통상적으로 2건 이상 기록문학의 대상이 되는 남성과 달리 여성을 대상으로 2건 이상의 기록문학이 쓰이는 경우는 전체 1889명중 525건에 그친다. 3건 이상은 210명, 4건 이상은 114명으로 전체 여성의 1/18에 지나지 않는다. 5건 이상 대상이 된 여성은 아래와 같다.

2) 관계 유형 사례

1) 이섭 처 김씨와 안동김씨

[추후 서술]

2) 은진송씨 현양사업

-여성 묘문이나 행장 등은 대체로 여성의 효, 청빈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가풍과 가문의 이름을 높이는 의도로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은진송씨에서 특정인에 의해 은진송씨 가문 여자들의 효행록, 유사 등이 쓰여진 점은 다른 여성기록문학과의 차이점을 보임

-이는 송극기 처 과평윤씨의 입전을 추진하면서 시작함

-이후로 많은 은진송씨 가문 사람들은 쌍청당의 몇 대손 등의 수식어가 붙음

은진 송씨(恩津 宋氏) 문중은 회덕현(懷德縣) 송촌(松村)을 근거지로 하는 문중이다. 은진송씨는 입향조인 송명익(宋明諶) 이후로 송촌에 거주하기 시작하여 쌍청당 송유(雙淸堂 宋楡) 이후로 기반을 다졌다. 은진송씨 문중은 송시열과 송준길이 조정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시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가문 위선(爲先)사업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회덕에 기반을 둔 은진 송씨 가문의 지식인들은 남성 지식인 뿐 아니라 그들 집안에서 자라 타 가문으로 출가한 여성, 그리고 혼인을 통해 은진 송씨 집안에 편입한 여성들을 향한 위선 활동에도 힘썼다.

아래는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된 은진송씨 가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기문학과 그를 둘러싼 인물관계를 정리한 그래프이다. 가문 위선활동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송시열과 송준길을 필두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한 같은 시기 남성 지식인들을 확인할 수 있다.

쌍청당 송유(雙淸堂 宋楡)는 송시열, 송준길 두 명의 은진송씨의 조상으로서 조정 에 나아가 고관을 맡지는 못했지만 뛰어난 학식과 인품으로 근방 우학자들 사이에서 인망이 두터운 인물이었다. 그러므로 송시열과 송준길의 위선사업은 송유 처 유씨를 정려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 은진송씨 문중에서 송유 처 류씨 정표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논이 오고 간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쌍청당 처 유씨 관련 추후서술]²⁶⁾

(3) 정일당유고 편찬을 중심으로 보는 윤광연의 인적관계

[추후 서술]

- 정일당유고의 저자는 정일당 강지덕이다. 강지덕은 여성 성리학자이자 문인으로 서 생전에 많은 저작을 남겼고 사후 남편인 윤광연에 의해 수집, 간행되었다.
- 정일당유고에 수록된 전기문학은 정일당의 친, 시가 문인들 뿐 아니라 윤광연의 인맥관계/윤씨 일가의 문인들을 문집 안에서 확인할 수 있음/ 같은 시기 여성문집 제문들과 비교

V. 결론

26)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0366A_0160_010_0110_2011_002_XML 송준길이 송유 처 유씨에 대한 정려를 촉구하기 위해 적성한 글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 현, 『인문정보학의 모색』, 북코리아, 2012.
- 김 현·김바로·임영상, 『디지털인문학 입문』, HUEBOOKs , 2016.
- 陳必祥 지음, 심경호 옮김, 『한문문체론』, 이회문화사, 2001

2. 논문

- 김바로, 「제도와 인사의 관계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 근대 학교 자료 (1895~1910)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윤종용, 「역사 자료 텍스트의 전자적 기술에 의한 지식 관계망 구현 연구 : 『通鑑節要』와 『譯註 通鑑節要』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이재옥, 「조선시대 科擧 合格者의 디지털 아카이브 편찬과 인적 관계망 구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김 현·안승준·류인태, 「데이터 기반 인문학 연구 방법의 모색: 문중 고문서 아카이브와 디지털 인문학의 만남」, 『횡단인문학』,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인문학연구소, 2018.
- 정진수·김학용, 「고구려, 백제, 신라 왕조실록 인명 네트워크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Vol.11 No.5, 한국콘텐츠학회, 2011 474-480쪽.
- 구지현·서소리, 「한중교류 척도의 시각화 방안 시론」, 『열상고전연구』, 제50집, 2016, 39~65쪽.
- 진재교, 「빅 데이터와 디지털 동아시아학의 가능성 -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 지도`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Vol.98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회, 2017.
- 김하영, 「門中古文書 디지털 아카이브 구현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구영옥, 「한국 고문서의 기술요소 선정과 고문서 XML DTD 설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박순, 「고전문학 자료의 디지털고전문학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편찬 연구 - 누정기(樓亭記) 자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김현·안승준·류인태, 「고문서 연구를 위한 데이터 기술모델」, 전국역사학대회, 제59회, 2016.
- 이남희, 「디지털시대의 고문서정리 표준화」, 『고문서연구』, 제22호, 2003, 25~50쪽.
- 서소리, 「문화유산 지식 정보 데이터 모델 연구 : 불탑 지식 정보망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심경호, 「문자와 매체 : 조선선비의 문자생활과 지적 교류」, 『국학연구』 Vol.14, 한국국학진흥원, 2009, 413-449쪽.
- 백미나, 「묘지명과 열전을 통해서 본 문헌성과 역사성의 상호관련 양상 연구 -이자겸 난과 관련된 인물을 중심으로-」, 『東方漢文學』 Vol.48, 동방한문학회, 2011, 135-156쪽.
- 김태경, 「비지류(碑誌類) 산문을 활용한 전기 쓰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종철, 「애제류(哀祭類)의 갈래 성격과 글쓰기 특성」, 『東方漢文學』 Vol.48, 동방한문학회, 2011, 209-228쪽.
- 정출현, 「연보와 평전 : 사실의 기록 또는 기억의 서사」, 『韓國漢文學研究』 Vol.67, 한국한문학회, 2017, 69-110쪽.
- 김경록, 「조선시대 제문으로 본 죽음의 정치외교적 의미」, 『溫知論叢』 Vol.50, 온지학회, 2017, 95-133쪽.

3. 웹페이지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한국사LOD, 국사편찬위원회, <http://lod.koreanhistory.or.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people.aks.ac.kr>